

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<h1>보도자료</h1>	2016. 3. 15(화)	
		작 성 · 문 의	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 과장 박용우 / 중령 김국현 (Tel. 044-200-2126)
* 엠바고 : 즉시 사용 # 행사 사진은 곧 별도 배포할 예정입니다.			

‘강력한 한미동맹으로 북 도발 억제해야’

- 황교안 총리, ‘CP 탱고’ 방문하여 키리졸브 연습 참관 및 한·미 장병 격려
 - 한미연합연습은 새로운 안보상황에 맞게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기회
- 황교안 국무총리는 3월 15일(화) 한·미 연합사 지휘소인 ‘CP 탱고’를 방문하여 키리졸브(Key Resolve) 연습 상황을 참관하고 훈련중인 한·미 장병을 격려하였다.
- 오늘 CP 탱고 방문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서 철저한 대비태세를 강조하기 위해 이루어졌다.
- 먼저 황 총리는 한·미 연합훈련 상황을 보고 받은 후,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,
- “한·미 연합연습은 새로운 안보상황에 맞게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”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하였다.
 - 이후 황 총리는 훈련 상황을 참관하고 한·미 장병들을 격려하면서, “한미 연합훈련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”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.
- 한편, 황 총리는 취임 후 육·해·공군 각 부대를 찾아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등 안보행보를 이어가고 있다.
- 작년에 해군 222 전진기지대·해병대 연평부대(15.7.10), 육군 1사단(15.9.26) 및 공군 제19전투비행단(15.12.30)에 이어,
 - 올해는 육군 3사단(16.2.3), 해군 서해류성통함(16.2.26)을 방문하였고, 튼튼한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행보를 지속 할 계획이다.